

50돌 맞은 대불련, 포교 발전 모색

대불련 50주년 사업회 기자회견... 8월 17일 기념식

한국대학교불교연합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역량을 결집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한다.

대불련 50주년 기념사업회(운영위원장 임동주)는 1월 28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주년을 맞은 미래비전을 밝혔다.

대불련 50주년 기념사업은 크게 △대불련 비전 수립을 위한 아단법칙 개편 △안정적 재정 토대 마련을 위한 대학전법센터 건립 △8월 17일 50주년 기념식 개최 △(대불련 50년사) 발간으로 진행된다.

‘선재! 붓다의 길을 묻다’로 이름 붙여진 아단법칙은 그동안 한계에 부딪혔다는 대학생 포교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학생 포교 활성화를 위한 역량 결집의 자리로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도법, 법륜, 해인 스님 등 대학생 멘토를 초청해 대학생들에게 불교 철학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된다. 또 4월 중으로 대불련 총동문회와 사찰 신도회 등 유관단체들의 대학생 포교에 대한 의견 수렴

- 4월 중 포교 공청회 개최
- 대학전법센터 추진 통해
- 연합회 재정 안정화 확립

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공청회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대불련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교육사업인 KBUF Leader's Club의 교육프로그램이 확장될 예정이다.

외형적으로는 대학생 포교의 안정적 기

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학전법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대학전법센터 건립을 위해 후원 조직을 강화한다. 대학전법센터에서는 대학생들을 위한 포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연구하는 연구조직이 운영되며 불교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교계 인력 배출의 장구역할을 담당한다.

50주년 기념사업회 임동주 운영위원장은 “KCC(기독교학생회)의 경우 수십년 전부터 회관 등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공격적인 대학생 포교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구조직도 들어설 대학전법센터는 대학생들의 주체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적, 물질 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불련 50년사〉에는 성철 스님, 광덕 스님, 이한상 거사 등 대불련 창립과 대불련 사에 역할을 한 각계 인사들의 자료 등이 담길다. 또 발간에 앞서 역사자료 전시회와 후원금 모집 행사 등을 병행해 진행될 예정이다.

8월 17일 열리는 50주년 기념식은 동문과 전혁직 지도법사, 지도교수, 동문가족, 후원인 등이 소통하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포교동력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확대 등을 목표로 진행된다.

한편, 대불련은 2012년 7월 14일 50주년 기념사업 발기인대회를 열고 11월 기념사업회 조직을 완료했다. 추진위원장은 박지연 대불련 51년차 회장으로 임동주(서울대 70학번, 대불련 10년차 회장)씨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유지원(전북대 87학번)씨를 집행위원장으로 편찬 기획 조직 후임 정책 홍보 등 집행위원회를 구성했다.

박지연 회장은 “50주년을 맞아 대불련인들의 화합의 장을 만들겠다”며 “청소년 포교의 역사인 대불련이 기반을 마련고 다가올 50년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고불총림 4대 방장 광제 스님 추천

백양사 산중총회서... 3월 중앙총회서 추천 결의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진우)는 1월 26일 참사관 수행관에서 산중총회를 갖고 지난해 3월 수산 스님 임적으로 공석이 된 제4대 차기방장으로 자용 광제스님을 추대했다.

이날 산중총회는 새로 개정된 산중총회법에 의해 300여 명의 백양사 대중 가운데 156명이 자격이 인정되어, 이날 88명이 참가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추대되었다.

이날 광제스님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아 수락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백양사에는 방장추대위원회를 통해 추후 광제스님에게 대중들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선스님(백양사 수좌)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산중총회를 통해 대중들이 방관을 하



지말고, 앞으로 총림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제스님은 1969년 3월 서용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70년 범어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계했다. 스님은 1971년부터 봉암사, 동화사, 복천암, 향천사 천불선원, 백양사 운문암 등에서 20년거를 성만했다. 지난 2002년 7월 서용 스님으로부터 전법 부촉을 받고 백양사 수좌로 위촉되었으며, 2012년 수산 스님 유시로 고불총림 백양사 부방장으로 위촉됐다. 백양사=양행선 광주지사장

“신도관리 체계화로 포교 역량 키울 것”

조계종 포교원, 신년기자회견... “환희·감동 포교 지속”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올해 신도관리 체계화를 통한 포교활성화를 천명했다. 이를 위해 포교원은 신도교육 정예화, 어린이 청소년 포교 활성화, 군포교 정책 수립 등 다양한 사업을 중점 전개한다.

포교원은 1월 30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취임 2년차를 맞아 환희와 감동의 포교로 전법의 지평을 넓히고 시대와 소통하겠다”며 “특히 신도교육 정예화, 전법단 운영체계 정립, 신도단체 재정비 등 신도관리 체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포교원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활성화 △군포교 연계 정책 수립 △신도교육 정예화 △전법단 운영체계 정립 △사찰 중심의 지역포교 활성화 △포교후원회 결성 및 포교기금 조성 △SNS전법 등 미래포교 예비 △신도단체 활성화 등 8대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2012년 진행한 SNS포교 전략 등을 구체화해 포교현장에서 역량강화를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또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기념해 불자들이 결집하는 기념행사를 진행할 것을 밝혔다.

SNS 등 사회변화에 따라 포교역량을 모으기 위해 포교지도를 작성하고, M포교라이브러리를 개관해 구축된 자료를 포교현장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정전 60주년을 기념해 9월 6일 학술세미나와 7일 열린음악회 및 위령제 등도 개최하며 7월 27일 UN의 한국전쟁 정전60주년 기념행사에도 참여한다. 이에 앞선 5월 3일에는 10만 평화걷기 행사도 개최한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2013년 내실있는 운영과 역량결집으로 시대를 선도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불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중앙승가대 총장 선출 연기

승가학원 97차 이사회의

학교법인 승가학원(이사장 자승)은 1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97차 비공개 이사회를 열고 총장 선출 등의 안건을 다뤘지만,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다. 회의는 2월 말에서 3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자승 스님은 총장 선출 안건 이월 후 “성분, 무상, 항적, 지현 스님이 총장 후보인 미산, 원정 스님과 함께 의견을 조율해 단일 후보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사회는 2013년도 법인 및 대학 자금 운영 예산 심의와 개방형 이사·추천 감사 선임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앙승가대의 올해 예산은 45억 7천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0.9% 감액됐다. 예산은 축소됐지만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된다.

특히 7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여학원 신설은 중앙승가대의 올해 중점 사업이다. 총 8학점이 예정된 여학원 수업은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와 과목으로 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 실시된다. 교육은 원어민 강사를 초빙해 실생활 회화를 습득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방이사에는 조계종 기획실장 주경 스님이 선출됐으며, 임기가 만료된 감사 헌담 스님은 유임됐다.

신종일 기자



“든든한 희망 안고 입학하세요”

아름다운 동행, 선재의 선물 책가방지원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1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선재의 선물’ - 책가방 보내기 포장식 및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3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석해 포장식을 진행했다. 또한 종로구 다문화가정의 최가연(8세) 아동 외 3명

의 아동이 참석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책가방과 학용품과 도서가 담긴 선물 박스를 전달받았다.

선물을 전달받은 김순덕 할머니는 8살 손녀 정다희 어린이와 함께 살고 있는 조손가정 어르신이다. 김 할머니는 “허리 수술로 몸이 많이 안 좋고 형편이 어려운 손

주에게 입학 선물을 변변히 챙겨주지 못했는데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아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선재의 선물’ - 책가방보내기 모금 캠페인은 지난 해 연말 약 1달간을 걸쳐 1인 후원자가 5만원을 후원하면 1명의 아동에게 책가방을 선물하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금활동을 통해 약 1500만원이 모금됐다. 또한 지난 9월 동행이 개최한 나눔바자회의 수익금과 아름다운동행에서 기금을 보태 총 6천 만원 상당의 기금이 모아졌다.

글= 정혜숙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사찰서 만나는 경전 속 식물

사생연, 1차 보고서 발간

사찰생태연구소는 <불교경전 속 식물이야기> 1차년도 사업으로 <우리나라 절집의 불교 경전 속 식물> 보고서를 발간하고 답사기행을 떠난다. 여기에는 대장경 속 식물 중 우리가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소나무 잣나무 향나무 호두나무 등 20여종의 나무 이야기와 생애 등을 실었다.

이와 함께 사찰생태연구소는 ‘향기나는 삶을 찾아 떠나는 기행’도 계획하고 있다. △3월 31일, 매화향 그윽한 남도의 절

집·백양사, 금문사, 선암사, 송광사, 쌍계사 △6월 16일, 맑은 기운이 깃든 향나무-신록사, 광덕사, 마곡사, 범주사 △9월 29일, 청정함을 닮은 나무들-낙산사, 상원사, 월정사, 정암사 △11월 17일, 대장경을 담은 나무들-해인사, 범어사, 통도사, 운문사 등 계절별로 나누어 답사를 계획하고 있다. 사찰생태연구소는 앞으로 2차년도 사업으로 ‘수행자의 공양물, 곡식과 채소 이야기’, ‘약이 되는 식물과 향이 좋은 식물’ 이야기를 주제로 2차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참선지혜

활인선원의 3일간의 깨달음

선회 3일, 수련회 6일 - 금강단식

<봄방학 특별> 청소년 대학생 일반

일상생활의 갈등과 어렵고 힘든 삶을 참선지혜로 거뜰하게 해결하세요.

금강단식 효과 지대함 면역성 피부미용질환 금연금주간단해결 고혈압당뇨 각종질환 정신예방치유 다이어트 1일최고 3kg

선회 3일 2월입재/2월 15일(금) 오후 5시, 회향/2월 17일(일) 오후 5시 3월입재/3월 22일(금) 오후 5시, 회향/3월 24일(일) 오후 5시

수련회 6일 2월입재/2월 15일(금) 오후 5시, 회향/2월 17일(일) 오후 5시 3월입재/3월 22일(금) 오후 5시, 회향/3월 24일(일) 오후 5시

지혜의 확장-현재 자신이 처해있는 크고 작은 가정과 직장 대인관계 등 일상에서 겪는 생활의 모든 문제를 지혜로 풀어나가는 것이 지혜를 확장하는 길이다. 그것이 높은 지혜를 발휘하게 한다. 현대사회에서 겪는 물질 돈 이성 스트레스 취업 직장동료·상하관계 가족관계 제반 문제와 갈등을 몸에 배어있는 관행에 맡기지 말고, 지혜로 접근하다보면 의외로 주저앉거나 포기해왔던 어렵고 복잡한 골치 아픈 일들이 신기하리만큼 가볍게 해결되고 가뭄해진다.

제주원명선원 중앙선방

행복제작소 활인선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667-3번지 ☎ 1644-5266 / 070-7519-9929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통합검색 '활인선원'](#) 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